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

溶解紡糸機 도입設置

産業現場에 必要한 技術開發에 直結 機械自體 國産化에 活用

韓國科學技術研究所(所長: 韓相準)는 지난해 연말 化學紡糸試驗을 위한 溶解紡糸시설을 도입 심유화한 연구실에 설치하였다.

그동안 국내 심유류생산을 해왔던 産業界에서는 使用하고 있는 紡糸機가 체계 크기 때문에 新製品開發의 試驗生産에는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애로가 있었으나 금번 KIST 용융기계 시설의 도입 설치됨에 따라 解決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용융방사기(Melt Spinning Machine)가 지난 73年 PAC자금(대일청구권 자금) 10萬弗을 들여 日本의 化學심유기계 제조업체인 Toshiba(東芝)에서 設計製作한 것으로 多目的의 紡糸試驗이 될 수 있도록 특수장비가 되어있으며 機械의 容量은 時間當 1kg 生産의 Single Spinning head이다.

특히 自動制御計器類 및 設計內容이 산업용과 조금도 달라져 없으며 機械를 活用하여 開發된 研究成果가 바로 산업현장의 직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尹漢植 KIST 심유화학 연구실장인 「기계자체가 1개의 紡糸口로 되어있는 國內唯一한 시설이다. 방사수가 하나란 함은 化學原料인 Chip과 Oil 소모가 엄청나게 적으므로

新製品 試驗生産 利用에 아주 적합하다」

「現 심유업체에서 運用하고 있는 紡糸施設에서 原料의 강도가 낮다든지 計劃대로 되지 않을때 이 기계를 利用, 체계 解決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紡糸機 國産化문제 가 시급한 現時點에서 모델로서 活用할 수 있는 組立式이 되어있어 편리하다」고 하며 「이 施設을 利用 國內 産業界에서 必要로 하는 새로운 製品(糸)을 만들어 産業界에서 活用할 수 있는 선구적 役割을 하겠다」고 강조한다.

韓國 25年間

外國技術 受援額

2억3천餘萬弗

우리나라가 지난 51년부터 75년말까지 외국에서 지원받은 技術受援額이 모두 2억 3천8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AID, 유엔, 콜롬보프렌(個別國家들과 技術協力을 해왔다) 정부는 美國國際開發處(AID)로부터 기술보편성과 관련 전문과 과전등 모두 1억 2천 5백 81만 3천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유엔에서 6천 6백만달러, 콜롬보프로부터 2천 1천 9백만달러, 기타국가 2천 5백 80만달러씩을 受援했다.

技術受援內容을 보면 훈련생 과전자금 4천 3백 12만 7천달러, 전문과초빙 5천 8백 83만 4천달러, 기계도입 5천 8백 65만 9천달러 등이다.

産學協同財團

美하버드大

보크總長초청 오찬
産學協同財團(이사장:李活)은 지난 17일 낮 방한중인 美하버드大 데렉·C·보크 총장을 초청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李活 産學協同財團理事長을 비롯 崔亨燮 技術處長 金允基 科總處長 鄭周永 總대건설會長, 朴龍學 대농사장, 李漢彬 總대總長 등 과 미국측에서 스나이더 大使 보크 총장 일행 등 國内外人士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회에서 보크總長은 인사말 통해 「하버드大學校의 現代韓國經濟 및 社會 發展을 개선토록 지원해준 産學協同財團과 12個 企業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이어 「많은 美國人들은 한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보크總長은 지난 16日 하오 내한했는데 삼학협동재단과 한국기업인들이 하버드대에

설치된 「월례한국경제 및 社會基金」으로 1백만달러의 기금을 기증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왔다.
보크총장은 오후 3시에 韓國開發研究院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KIST育成法

시행령개정

지난 1월 18일 閣僚會議은 KIST가 科學技術處長 官의에 事業을 주관하는 중앙관서의長으로부터 도출 申請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령의 議決했다.

科學技術處

세계산업기술박람회

참관업체 신청접수

지난 18일부터 科學技術處는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美國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산업기술박람회 참관회 申請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이다.

과학기술응용 제2집

편찬위원회

과총은 지난 21일 과학기술 응용 제2집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가졌다.
나세진위원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25개의 학부문의 시일만 8백 80용어로 46백만 원 조 2만으로 발행할 것을 의결했다.